

INTERVIEW

28청춘창업소 입주기업 인터뷰

28청춘창업소에 입주해 창창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년창업가를 만났다.



“아토피가 있는 제 딸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우수한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어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우수한 공간 인프라로 운영비와 시제품 제작비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라파덤 — 오한나 대표

오한나 대표는 유명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 출신인 아버지와 함께 화장품 창업에 도전했다. 아버지의 화장품 개발 능력과 오 대표의 열정이 만나 라파덤 브랜드가 탄생했다. 창업에 도전한 또 하나의 이유. 오 대표에게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딸을 위해서였다.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딸에게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라파덤의 제품력은 아버지의 실력으로 확실히 보장됐지만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비용이었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창고를 운영하는 비용은 어렵잡아 계산해도 큰 장벽이나 다름없었다. 오 대표는 28청춘창업소에 입주하면서 창업해 임대료, 창고 운영비 등을 획기적으로 절약한 비용을 개발비로 활용해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판매처를 아토피 등 피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찾는 피부관리실, 피부과로 정해 가격을 정당하게 받아 꾸준히 수익을 창출했다.



창업 초기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인프라가 풍부해 처음 도전하는 기업 경영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입주기업들과 협업하면서 동기부여가 됐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청년창업기업이라는 책임감을 느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우름헬스케어 — 송하준 대표

송하준 대표는 고양시 내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대회, 체육종목 단체들의 이벤트 등의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스포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안전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포부로 아우름헬스케어를 창업했다. 하지만 개인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유지비와 인맥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송 대표는 28청춘창업소의 문을 두드렸고 팀원과 함께 미팅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는 28청춘창업소에 입주한 기업인 웨이버러시스, 그룹짓다와 각각 협업해 많은 경험을 쌓았다. 안전 관련 용품을 제작해 상품화하기 위한 필수 코스,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도 해결했다. 완벽한 시제품을 만들 때까지 메이커스페이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 큰 힘이 됐다. 그는 부상이 많은 관절 부위의 보호대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에게 전합니다

• 달라지는 청년지원 정책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청년도전사업 중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단기 프로그램은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중장기 프로그램은 참여수당 250만 원과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2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일 2023.1.1.

4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작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시범 도입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경기북부와 부산, 제주가 추가돼 전국적으로 총 4곳이 운영된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란 투자 재원과 사업화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우수한 청년 창업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지도(코칭)부터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진다.



시행일 2023.1.16.

2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제도 개편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폭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 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시행일 2023.1.9.

5

청년도약계좌 출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며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시행일 2023.6.1.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확대

청년농업인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연 4,000명을 선발하고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며 부모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농업, 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은 시기의 제한 없이 허용된다.



시행일 2023. 하반기 예정

6

대학입학금 폐지

지난 2017년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가 합의된 이후 국공립대, 일부 사립대를 필두로 대학입학금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2023년 대학입학금은 완전 폐지돼 대학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행일 2023.3.2.